



2023년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소장유물 자료집

---

# 이종화와 문학산

슬라이드 필름에 담은 풍경

---

총괄	손장원(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기획	신은미(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장) 정이슬(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원고	정이슬(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조우성(前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신은미(인천광역시립박물관 유물관리부장)
조사·편집	정이슬(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오송희(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예연구원)
유물 출납 및 지원	허윤현(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이정은(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예연구원) 김창규(인천광역시립박물관 연구원) 장희주(인천광역시립박물관 연구원)
음성복원	(주)오디오가이
사진 스캔 및 복원	손스튜디오 119사진병원
자료제공	이희관
일러두기	

1. 본 소장유물 자료집은 박물관의 주요 소장유물에 대한 조사 · 연구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2. 수록 사진은 대부분 이종화 선생의 유품이며, 그 외의 사진인 경우 별도로 출처를 표기했다.

# CONTENTS

## 자료집을 발간하며

I. 조사 개요	06
1. 자료 소개 및 내용 구성	08
2. 문학산의 과거와 현재	14
II. 이종화(1911 ~ 1974)의 생애와 활동	18
1. 인천 정착과 공립의원 운영	20
2. 사진작가 활동	24
• 개항기 ~ 해방 이전 인천의 사진문화	24
• 해방 이후 제물포사진동지회와 은영회	25
• 은영회 가입과 활동	26
• 1965년 『문학산』과 1968년 『인천사진문화사』 발간	40
• 1969년 ~ 1974년	48
III. 슬라이드 필름으로 보는 《문학산(文鶴山)》	56
1. 이종화의 슬라이드 작품전	58
2. 제4회 이종화 슬라이드 작품 영사회	59
2-1. 영사회 구성과 개요	59
2-2. 지면으로 보는 작품 영사회 《문학산(文鶴山)》	63
[부록] 고일 선생의 1963년 슬라이드 영사회 감상기	105
[부록] 《문학산(文鶴山)》슬라이드 필름 복원	107
IV. 대담 - 이종화 선생과 문학산	108
V. 부록	124
1. 1965년 『문학산(文鶴山)』 수록 사진	126
2. 이종화 연표	134



## 자료집을 발간하며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은 1946년 4월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박물관으로 인천의 역사 자료와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조사·연구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립박물관 소장유물 자료집은 소장 중인 자료 중 주요 유물을 선정하여 사진과 설명을 함께 수록하고,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시민들과 널리 공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중화루의 얼굴-간판』, 2022년 『조병창의 중국 유물』을 발간하였습니다.

올해 소장유물 자료집에는 이종화(1911~1974) 선생이 사용했던 카메라 및 옛 인천의 풍경들을 촬영한 다수의 슬라이드 필름 등 관련 자료들을 수록했습니다. 이종화 선생은 당시 신포동에 있던 공립의원을 운영한 의사(醫師)이면서 사진작가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1965년 『문학산(文鶴山)』, 1968년 『인천사진문화사(仁川寫真文化史)』를 출간하여 인천 지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남기셨습니다.

이번 소장유물 자료집을 통해 이종화 선생의 생애 및 활동, 1950 ~ 1960년대 옛 문학산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료집 발간을 위해 1962년 9월 중순 인천시립박물관에서 개최한 제4회 이종화 슬라이드 작품영사회 《문학산(文鶴山)》에 쓰인 슬라이드 필름을 고화질로 스캔하고 영사회 내레이션 음성을 복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이 시민들에게 박물관을 알리는 계기가 되고, 학계의 연구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12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손장원





## 조사 개요

1. 자료 소개 및 내용 구성
2. 문학산의 과거와 현재



# I 조사 개요

## 1. 자료 소개 및 내용 구성

2023년도 소장유물 자료집은 올해 상반기 시립박물관이 확보한 이종화 선생의 자료를 소개하고, 간략하게나마 업적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박물관에서 확보한 자료들은 고(故) 이종화(1911~1974) 선생이 사진작가로 활동할 당시 사용했던 카메라,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담은 슬라이드 필름, 릴테이프 등이다.

스캔 결과 10여 년간 촬영한 문학산의 다양한 모습은 물론 사진작가로서 활동했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 낡고 해진 가방과 각종 카메라, 국내에서는 현상이 어려워 일본, 미국 등으로 필름을 보내고 주고받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필름 케이스 등에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1960년대 사진작가의 모습도 묻어있었다.

확보 자료들을 토대로 자료집의 내용을 총 다섯 부분으로 구성했다.

Ⅱ장 「이종화(1911 ~ 1974)의 생애와 활동」에서는 이종화 선생의 생애 전반을 다룬다. 세브란스 의전(醫專)을 졸업 후 인천에 정착, 공립의원(共立醫院)을 운영하였던 내용과 1956년 은영회(銀影會) 가입 후 1974년 사망까지의 사진작가 활동을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이종화의 저서 『인천사진문화사』를 중심으로 하되 아드님의 구술 증언 및 사진자료, 자료집 발간을 준비하면서 수집한 단행본·신문기사, 잡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보완했다.

Ⅲ장 「슬라이드 필름으로 보는 《문학산(文鶴山)》」에서는 이종화 선생이 1962년 9월 시립박물관에서 개최한 제4회 이종화 슬라이드 작품 영사회 《문학산(文鶴山)》을 소개한다. 논고 작성을 위해 《문학산(文鶴山)》릴테이프의 음성을 복원했고, 영사회 당시 쓰인 199점의 개별 슬라이드 필름을 스캔한 고화질 이미지를 확보했다. 특히 1965년 발간한 이종화 선생의 도서 『문학산(文鶴山)』에 수록된 사진 외에 이종화 선생이 10여 년간 직접 촬영한 문학산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칼라 사진들을 최초로 공개한다.

Ⅳ장 「대담 - 이종화 선생과 문학산」에서는 이종화 선생과 문학산(文鶴山)을 주제로 인천의 원로 문화평론가 김양수 선생과 조우성 전(前)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과의 대담을 수록하였다. 대담을 통해 인천의 개항과 사진문화의 역사, 김양수 선생이 기억하는 이종화 선생의 모습, 이종화 선생이 촬영한 사진들의 가치와 선생의 저서 『문학산(文鶴山)』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V장에는 1965년 발간 『문학산(文鶴山)』에 실제로 수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의 고화질 스캔본과, 이종화의 생애를 정리한 연표를 수록했다.

박물관 소장 이종화 자료들에 대한 소개 및 고찰을 바탕으로 앞으로 과거 인천의 사진 문화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표1 이종화 자료 목록

연번	자 료 명
1	1965년 발간 『문학산(文鶴山)』 수록 사진 등 문학산 슬라이드 필름 200여점
2	필름 보관함(주한미군 탄약함)
3	문학산 슬라이드 필름 슬라이드 프로젝터
4	문학산 슬라이드 필름 영사회 나레이션 녹음 릴테이프 2점
5	1968년 발간 『인천사진문화사(仁川寫眞文化史)』
6	라이카 카메라 세트(카메라, 망원렌즈, 카메라 가방)
7	라이카 카메라
8	롤라이플렉스 카메라
9	1950년대 이후 인천 관련 사진 필름 등(흑백 필름, 슬라이드 필름) - 부둣가, 팔미도등대, 송도해수욕장, 조갯굴, 갯벌 등
10	각종 국제사진전 출품 사진 필름 일괄
11	인천예총, 사진작가협회 활동사진 필름 일괄
12	영문 타자기
13	1973년경 이종화 사진 <꽃 본 듯이>





Leica 카메라(좌 · 우)와 ROLLEIFLEX 카메라(중앙)  
 (좌)Leica No. 490488 (중앙) ROLLEIFLEX EDP 1769080 DBGM (우)Leica DBP M3-1095 217



《문학산(文鶴山)》 슬라이드 영사회 음성 녹음 릴레이프 및 슬라이드 필름



카메라 및 카메라 가방, 카메라 렌즈



슬라이드 프로젝터





이종화 선생이 촬영한 인천 관련 슬라이드 필름 사진 일괄



영문 타자기



필름 보관함으로 사용한 주한미군 탄약함 및 각종 필름들



각종 릴테이프

## 2. 문학산의 과거와 현재

이종화 선생이 10여 년간 사진을 촬영했던 장소 문학산(文鶴山)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소재한 고도 217m 정도의 산이다.

먼 옛날부터 문학산 일원에는 사람들이 생활했다. 본격적으로 사람이 거주했던 구체적인 흔적이 발견되는 시기는 청동기시대로 학익동 고인돌, 문학동 고인돌 등의 지석묘(支石墓)를 비롯하여 주거지(주거유적) 및 토기, 석검, 석도 등의 생활도구가 출토되었다. 그 이전 시기인 구석기, 신석기시대의 유적 양상은 불분명하나 문학동 선사유적에서 찍개 1점이 수습되어 구석기시대부터 문학산 일원에 사람이 생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sup>

삼국시대 - 고려시대를 거치며 문학산 일원은 여러 차례의 행정 변천을 거쳤다. 조선 초기 문헌 자료를 보면 인천군은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 소속이었다. 실록, 지리지 등에 문학산은 인천군(仁川郡)의 ‘남산(南山)’으로, 문학산성은 남산에 있는 ‘석성(石城)’으로 불렸으며, 봉수(烽燧)가 1개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 남산 석성(南山石城) 【군(郡) 남쪽 2리에 있다. 둘레가 1백 60보이며, 사면(四面)이 높고 험하다. 안에 작은 샘이 있다.】 역(驛)이 2이니, 중림(重林) · 경신(慶新)이요, 봉화가 1곳이니, 성산(城山)으로, 군(郡) 남쪽에 있다.

-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부평도호부(富平都護府)/인천군(仁川郡) -

- 남산(南山) 부에서 2리 되는 곳에 있다.

- 성산봉수(城山烽燧) 부 남쪽 2리 되는 곳에 있으며 남쪽으로 안산군(安山郡) 오질이(吾叱耳)에 응하고 북쪽으로 부평부(富平府) 축곶산(楸串山)에 응한다.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9권, 인천도호부(仁川都護府) -

1459년(세조 5) 자성왕비(慈聖王妃)의 외향(外鄉, 외가)이라 하여 인천군을 인천도호부(仁川都護府)로 승격시켰다.<sup>2)</sup> 이후 남산(문학산)은 인천도호부 일대의 주산(主山)이 되었으며 도호부, 향교, 서원 등 행정 · 교육 기관들이 자리잡았다.

1) 문학동 선사유적에서 찍개 1점이 수습되었다는 조사 보고는 기전문화재연구원 · 인하대학교 박물관, 『문학동 선사유적』, 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남구청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조사 보고 제29집 문학산성 정밀 지표 조사 보고서』, 2017, p. 16.

2) 본문의 자성왕후는 세조의 왕비이자 조선 제8대 국왕 예종(睿宗)의 어머니인 정희왕후(貞熹王后)를 말한다. 『세조실록(世祖實錄)』18권, 세조 5년 11월 5일 계미 5번째 기사.

그러나 1883년 인천의 개항 이후, 미국 · 영국 등 외국과의 통상조약이 개항장 제물포(濟物浦)에서 체결되면서 인천의 중심 기능은 점차 제물포로 옮겨졌다. 결국 1895년 갑오개혁 때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천 도호부를 ‘인천부(仁川府)’로 개칭, 제물포에 인천부의 관청을 새로 설치하면서 도호부가 있던 문학산 일원은 인천의 중심 지위를 상실했다.<sup>3)</sup> 1899년(광무 3년) 편찬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에서 구한말 남산(문학산)의 쇠락한 모습을 살짝 엿볼 수 있다.<sup>4)</sup>

- 남산(南山) 【부에서 2리 떨어져 있다. 일명 문학산(文鶴山)이라 한다.】

- 성지(城池)

미추홀고성이 있다. 【혹은 남산고성(南山古城)이라고도 한다. 관아에서 남쪽으로 1리 떨어져 있는 문학산에 있는데 둘레가 430척이다. 임진왜란 때 (인천)부사 김민선(金敏善)이 옛 성을 중수하고 사민(士民)을 이끌어 지키며 누차에 걸쳐 적의 공격을 좌절시켰고, 1593년(계사년) 7월에 병으로 죽자 부사 김찬선(金纘先)이 그를 이어서 끝내 성을 온전히 지켜냈다고 한다. 그 동문 밖 백여 보 떨어진 곳에 왜성(倭城)의 옛 터가 남아있다. 대개 성을 공격할 때 왜병들이 머물던 곳이다.】

- 봉수(烽燧)

성산봉수가 있다. 【관아에서 남쪽으로 1리 쯤 떨어져 있는 문학산성 옛 터에 있다. 남쪽으로는 안산(安山)의 정왕산(正往山) 봉수와 응수하고 있는데, 수로(水路)로는 30리 거리이고 육로(陸路)는 55리 거리이다. 북쪽으로는 부평(富平)의 축곶산(楸串山) 봉수와 응수하고 있는데, 육로로는 24리 거리이다.】

- 교원(校院)

향교【부에서 동쪽으로 1리에 있다.】, 학산서원【부에서 서쪽으로 2리에 있다.】 정관재 이단상을 향사 하였으며, 숙종(肅宗) 무자년(戊子 : 숙종 34년, 1708)에 사액되었다. 정조(正祖) 병오년(정조 10년, 1786)에 간암(艮庵) 이희조(李喜朝)를 함께 배향(配向)하였다.】 등이 있다. (그러나 서원은) 훼손되었다.

-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 -

3) <감영, 안무영과 유수 폐지에 관한 안건, 지방 제도의 개정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고종실록(高宗實錄)』33권, 고종 32년 5월 26일 병신 1번째 기사.

4) 인천광역시역사자료관, 『인천역사문화총서 제9호 (譯註)仁川府邑誌』, 2004, pp. 13, 16~18.



문학산 일원을 설명하는 자료들에 등장한 문학산성, 봉수, 향교, 서원 등은 현재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다. 정상부에 있던 봉수는 후에 없어져 봉수대만 남았는데, 문학산 정상부에 남은 봉수대 때문에 산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문학산을 ‘배꼽산’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조선후기에 건립된 학산서원(鶴山書院)은<sup>5)</sup> 『인천부읍지(仁川府邑誌)』가 쓰인 시기에는 이미 훼손되어 현재 학산서원이 있던 자리임을 알리는 표지석만 남아있다. 도호부 건물은 문학초등학교 교정 내 일부만 남아있으며, 도호부와 이웃한 인천향교(仁川鄕校)는 1990년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보존·관리되고 있다. 아래 흑백 사진들은 이종화의 『문학산(文鶴山)』에 수록된 당시 고적들의 모습이다.

이처럼 문학산 일원의 고적(古跡)들에 관한 자료들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일제강점기,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이후 문학산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수많은 유적들의 훼손을 피할 수 없었다. 1962년부터 약 50여 년간 문학산에 군부대가 주둔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였고, 1979년부터 문학산 정상에 공군의 미사일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류와 관련되었다는 우물<sup>6)</sup>, 임진왜란 당시 왜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인천도호부사 김민선(金敏善)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는 안관당(安官堂)은 터만 남은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전설로만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남아있던 봉수대마저 파괴되었다.



배꼽산의 봉화대(출처 : 『문학산(文鶴山)』, 1965.)



학산서원터(출처 : 『문학산(文鶴山)』, 1965.)

5) 학산서원(鶴山書院)은 인천도호부사를 재임한 정관재(靜觀齋) 이단상(李端相, 1628 ~ 1669, 재임기간 : 1664. 6. ~ 1664. 10.)을 모시기 위해 1703년(숙종 28)에 세웠다. 이후 사액서원이 되었으며 이단상의 아들 양재(良齋) 이희조(李禧祖)가 배향되었다. (출처 : 『정관재집(靜觀齋集)』 및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제9권 경기(京畿)/인천도호부(仁川都護府) 편 - 한국고전종합DB)

다행히 초대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석남 이경성(石南 李慶成, 1919 ~ 2009)이 1949년 발간한 『인천고적 조사보고서(仁川古蹟調査報告書)』에 수록된 「문학산 방면 고적전설 조사보고서」를 통해 대략적이거나 해방 이후의 문학산에 남아있던 고적들의 조사 현황을 알 수 있으며, 이종화 선생이 1965년 발간한 『문학산(文鶴山)』에 실은 흑백·칼라 사진으로 과거 문학산 일원의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문학산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올라갈 수 없는 산이었다. 그러나 2015년 10월 15일 ‘인천시민의 날’을 맞아 문학산 정상을 일부 개방했다.<sup>7)</sup> 2018년 산 정상부에 군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문학산의 역사를 소개하는 문학산 역사관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매년 문학산 정상에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문학산은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문묘(출처 : 『문학산(文鶴山)』, 1965.)



공덕비(출처 : 『문학산(文鶴山)』, 1965.)

6) ‘(중략)세속에 전해오기를, 문학산(文鶴山) 위에 비류성의 터가 있고 성문의 문짝 판자가 지금도 오히려 남아 있으며, 성안에 비류정(沸流井)이 있는데 물맛이 시원하다고 한다. 『여지승람』에 실리지 않아 한스럽다.(생략)’(출처 : 안정복, 『동사강목(東史綱目)』 제1상, <계묘년 마한 신라 시조 40년, 고구려 유리왕 2년, 백제 시조 부여온조(扶餘溫祚) 원년> 중 일부 발췌 - 한국고전종합DB)

7) <문학산 정상 50년 만에 개방...인천이 한 눈에>, 『오마이뉴스』, 2015년 10월 16일

# I

## 이종화(1911 ~ 1974)의 생애와 활동

### 1. 인천 정착과 공립의원 운영

### 2. 사진작가 활동

- 개항기 ~ 해방 이전 인천의 사진문화
- 해방 이후 제물포사진동지회와 은영회
- 은영회 가입과 활동
- 1965년 『문학산』과 1968년 『인천사진문화사』의 발간
- 1969년 ~ 1974년



## II 이종화(1911 ~ 1974)의 생애와 활동

### 1. 인천 정착과 공립의원 운영

이종화(李宗和, 1911 ~ 1974) 선생은 1911년 6월 3일(음력)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144번지에서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경북고등학교(당시 경성 제2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세브란스 의전(醫專)에 진학, 1938년 졸업했다(사진1 ~ 5 참조, 이희관 제공).



사진1 이종화 선생의 가족사진으로, 원형 점선의 인물이 유년시절의 이종화



사진2 이종화 선생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진3 학창시절



사진4 세브란스 의전(醫專) 졸업



사진5 야외 촬영에 나선 모습

이종화 선생은 6.25 전쟁 무렵 인천에 정착했다. 당시 인천에 있던 도립병원에 의사로 근무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드님에 의하면 인천 정착 후 송학동에 처음으로 공립의원(共立醫院)을 개업하였으며, 병원은 당시 일본식 주택 앞에 있었다고 한다(사진 6). 병원 입구 옆 붉은 벽 위에 부착된 흰색 간판에 진료과목(성병과(性病科), 부인과(婦人科))이 표시되어 있다.<sup>1)</sup>



사진6 송학동 시절 공립의원(共立醫院) 전경(이희관 제공)

이후 공립병원은 인천우체국 근처로 이전했다.<sup>2)</sup> 옮긴 시기는 1966년 ~ 1969년 사이로 추정된다. 이 병원은 이종화 선생이 1974년 사망할 때까지 운영하였고 이후 매각되었으며, 시가지의 개발로 현재 병원이 있던 건물은 남아있지 않다. 병원 위치와 관련해 간략히 언급한 신문기사가 있다.

인천신문 연재물 김윤식 시인의 ‘인천산책’ 사진자료 중에 공립병원이란 간판을 보고 반가웠다. 신흥초등학교에서 답동광장 그리고 인천우체국을 향한 거리풍경-키네마극장 자리의 외환은행이 건립되기 이전이니 아마도 1960년대 초 사진들인 듯 하다. 그때 이 도로를 5·16도로라고 했었다. 전쟁의 폐허를 걷어내고 군인시장이 권총 차고 개설했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었다. 그 이전 검진지정병원이던 공립병원은 내동 중소기업은행 곁에 있었다. 이종화(李宗和) 원장이셨다.(중략)

- <이종화 공립병원장>, 『인천신문』, 2020년 8월 8일 -

1) 간판에 표기된 'VDCLINIC' 중 'VD'는 'Venereal Disease(성병)'을 의미한다.  
 2) 당시 공립병원은 인천시 제1공보관 거리에 있었다. 인천시 제1공보관은 1965년 10월 2일 개관하였으며, 중구 신생동(新生洞, 현 신포동 일원) 2가 1번지에 위치해있었다.(『인천시사』(上), 1973, p. 903.)

병원의 모습은 『사진으로 본 인천개항100년』 및 1968년 발행한 『카메라藝術』 12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진7, 8). 병원의 정식 명칭은 ‘공립의원’이지만, ‘공립병원(共立病院)’으로도 표기했다(사진9). 병원의 위치는 현재 인천 중구 제물량로 160-2 일원으로 추정된다.



사진7 1960년대 제1공보관 거리 일대의 모습으로 우측 상단에 ‘공립의원’ 간판이 보인다.  
 (출처 : 『사진으로 본 인천개항100년』, 1983.)



사진8 공립의원  
 (출처 : 『카메라藝術』, 1968. 12.)



사진9 공립병원 광고(출처 : 『(月刊)京畿』, 1969. 4.)



## 2. 사진작가 활동

1968년 이종화가 직접 쓴 『인천사진문화사(仁川寫眞文化史)』는 개항기부터 1968년까지 인천의 사진문화 역사를 기록한 귀중한 자료이다. 1973년 발간된 『인천시사』 중 제6절 〈예술사진(藝術寫眞)〉 부분은 『인천사진문화사』를 토대로 해방 이전부터 인천시사 발간 시점까지의 사진예술분야를 서술했다.<sup>3)</sup>

본 글은 이종화의 위 저서와 『인천예술50년사(仁川藝術五十年史)』를 중심으로, 기타 단행본 · 잡지 자료 등을 참고하여 1956년 은영회 활동부터 1974년 사망까지의 이종화 선생의 사진작가 활동을 정리했다.

### · 개항기 ~ 해방 이전 인천의 사진문화

『인천사진문화사』를 쓴 이종화는 1871년 신미양요(辛未洋擾) 당시 인천 사람들이 미군함에 올라 타 촬영한 사진을 ‘우리나라 최초의 촬영작품’으로 소개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진촬영이 행해진 곳을 인천으로 보았다.

‘(중략)뱃속을 구경한 섬 사람들은 다시 식당으로 안내되어 후한 주식(酒食) 대접을 받았고 댁기 상(上)에서 사진을 찍었다. 한아름이나 되는 맥주병(麥酒瓶)을 안고, 손에는 장죽과 미국 신문을 들고 상투 바람으로 행전을 친 채 어색한 표정(表情)으로 사진을 찍었다. 지금도 그 사진이 미국 국무성(國務省)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진촬영이 행해진 곳은 인천이었다.’

– 『인천사진문화사』, 11페이지 –

현재 사진사(寫眞史)에서는 신미양요보다 10여 년 전 1863년 청나라에 파견된 연행사절단을 우리나라 사람들 중 최초로 사진을 접한 사람들로 보고 있다.<sup>4)</sup>

1904년 인천에 일본인이 경영하는 사진관이 생겼다. 현 중구청 근처, 중앙동 2가 14번지에 이노우에(井上)라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사진관이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중 ‘가지다니’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진서를 광영회(光影會)가 생겼다. 이 단체는 매월 월례회를 가졌고, 각 회원들이 월마다 자신의 작품을 지참(持參)하고 상호 조사를 한 다음 전원 투표로 그 등급을 결정했다고 한다.

광영회는 일본인들 중심의 단체였지만, 정용복, 태영호, 정현식, 신현호 등 소수의 한국인 회원들이 있었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이들은 일본인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1941년 경동네거리(당시 경동191번지 삼성병원 자리)에 인천 최초의 DP점(사진관)을 냈던 김진근은 일본인들이 잘 가르쳐 주지 않았던 사진의 작화법, 각종 처리법 등을 일일이 지도했으며 태영호, 정용복 등이 그에게 사사(師事)했다. 1941년 6월의 인천방첩사진연맹주최 사진전에서는 정용복의 〈황혼〉이 준특선을 차지했고, 1941년 8월 전조선사진연맹주최 제2회 《바다의사진전(展)》에서 태영호의 작품 3점이 입선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 해방 이후 제물포사진동지회와 은영회

해방 후 처음으로 한국인만으로 조직된 사진 단체는 1946년 5월 조직된 제물포사진동지회(濟物浦寫眞同志會)로, 인천 시내 파르마다방에서 첫 회합을 가졌다. 회장은 일제강점기부터 활발히 활동했던 정용복(丁龍福), 부회장은 김진근(金振根) · 김득주(金得柱)였다. 회원으로는 태영호(太永浩), 원용일(元容一), 김재택(金在澤), 문철주(文哲洙), 정현수, 신현호(申鉉浩), 공석우 외 2명이 있었다고 한다.

제물포사진동지회는 1946년 10월 금융조합(당시 중소기업은행 인천지점) 2층 강당에서 작품 100점을 가지고 동인전을 개최했다. 또한 우수작품이 인천시장상 · 인천경찰서장상을 받을 정도로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오래가지 못하고 반년 만에 해산되었으며, 이후 은영회가 등장했다.

은영회(銀影會)는 1949년 1월 10일 창립한 사진단체이다. 창립 주도 인물은 김철세(金哲世), 최성연(素眼崔聖淵, 1914~2000)이었다. 창립 당시 회장은 이경성(石南 李慶成, 1919~2009)이며 최성연은 총무간사였다. 창립 시 과거 해산한 제물포사진동지회 전원을 참가시키려 하였으나 일부 회원들만이 입회하여 제물포사진동지회 회장이었던 정용복이 고문으로, 부회장이었던 김득주가 교섭간사로 참여했다. 그 밖에 제2대 인천시장 표양문(表良文, 재임기간 : 1947. 2. ~ 1950. 4.)도 은영회 고문으로 참여했다.

초창기 은영회는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은영(銀影)』이라는 회지를 창간하고, 박물관 주변에서 어린이 촬영회를 개최했다. 월례회 때 작품조사도 했었고, 회합 장소인 청구(靑丘)사진문화사 내에서 작품을 놓고 상호심사 및 토론을 했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인해 계획했던 추계(秋季) 동인전(同人展)이 무산되고 회원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은영회는 인천 수복 후 1951년 10월 사진예술전 개최(장소 : 문충회관)를 시작으로 제2회 《향토사진예술전》 등을 개최하면서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다.

3) 『인천시사』(下), 1973, pp. 627 ~ 630.

4) 우리나라 사람이 서양의 사진을 처음으로 접촉한 것은 1863년 이의익(李宜翼)을 정사(正使)로 하여 파견된 연행사절단이다. 당시 청나라의 수도 연경(燕京, 현재의 북경)에 가서 사진을 접하고 찍는 경험을 했다. 이의익은 최초로 사진관을 찾았고 외국인 사진가에게 사진을 찍었다. 이의익이 북경의 러시아관에서 사진을 찍었던 체험은 그가 저술한 『연행초록(燕行抄錄)』에 기록되어 있다.(박주석, 『한국사진사』, 2021, pp. 30 ~ 31.)

## · 은영회 가입과 활동

평소 글쓰기를 좋아했던 이종화 선생은 사진 촬영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해 1956년에 은영회에 가입, 회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1956년 3월 2일 은영회는 재건정기 총회(제4차)를 인천기독병원 강당에서 개최하고 회명을 ‘인천은영구락부’로 개칭했다. 또한 임원진을 개선하여 고문으로 제6대 인천시장 김정렬(金正烈, 재임기간 : 1954. 2. ~ 1958. 1.)이 참여했고, 제4대 회장으로 허합(후에 『경기연합일보』 사장)을 선출했으며, 이종화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런데 1994년 발간 『경기에총사(京畿藝總史)』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sup>5)</sup>

李宗和(미상 ~ 1974) : 함경도 태생으로 세브란스의전(醫專)을 졸업한 산부인과 의사였다. 그는 인천(仁川)에 정주하면서 병원 일 틈틈이 사진에 열중했다. 사진에 입문한 것은 1950년대 중반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에서 1949년 처음 생긴 사진단체가 은영회(銀影會)인데 그는 이 멤버가 아니고, 1958년에 발족한 인천사우회(仁川寫友會)의 멤버였다.

- 『경기에총사』, 203페이지 -

그러나 이 내용은 경기에총사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첫 번째, 이종화 선생은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서 태어났다. 두 번째로 본인의 저서인 『인천사진문화사』에서 1956년 은영회 회원으로 들어갔다는 것과 인천 내 또 다른 사진 단체였던 인천사우회와의 통합 과정에서 본인은 통합을 위한 은영회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하였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956년 7월 6일 인천은영구락부는 다시 초기의 이름이었던 ‘은영회(銀影會)’로 개칭하였으나, 이 무렵 은영회 초창기부터 활발히 활동했던 회원 최성연은 문학으로 ‘전향’하여 은영회를 떠났다. 한편 이종화는 7월 29일 경기문화사 대표 이향(李卿)의 알선으로 수원사우회(水原寫友會) 회원들과 친선 촬영을 가졌다. 수원 측 멤버로 제4대 수원시장 김한복(金漢福, 재임기간 : 1955. 4. 25 ~ 1959. 4. 25.), 김동욱, 김동휘, 홍의선, 김명현 외 4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오전 11시 수원 용궁다방(龍宮茶房)에서 사진문화교류 환담회(歡談會)를 개최하여 수원측의 요청으로 인천의 김철세가 칼라 사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이어서 ‘프로젝터’로 슬라이드를 수원회원들에게 보여주었다. 12시 반 중앙호텔에서 끝나고, 환담시간으로 2시간을 가진 다음 오후 3시반부터 고적 촬영회를 가진 바 있었다.

- 『인천사진문화사』, 30페이지 -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5회 은영회 동인전을 인천금융조합(당시 중소기업은행) 2층에서 가졌다. 이종화는 처음으로 <국화(菊花)빵>(사진10)과 <아담의 후예>를 출품했다.



**사진10** 제5회 은영회 동인전에 출품한 <국화(菊花)빵>의 원본으로, 자녀들을 모델로 연출한 사진이다.

5) 한국예술문화단체연합회, 경기에총사편찬위원회 편, 『경기에총사』, 1994, p. 203.



이듬해 1957년 발간 『사진문화』제6호(4월호)<sup>6)</sup>에 이종화의 사진 〈눈 나리는날〉이 준특선 일석을 차지하여 잡지에 게재되었다(사진11, 12).



**사진11** 〈눈 나리는날〉(출처 : 『사진문화』제6호(4월호), 1957. 4.)

『눈 나리는날』 준특선 일석 이종화(仁川)  
라이카 35 TR X 필름 F5.6 1/250초  
(評) 노인의 전체(全體)에서 우러나는 감정이 고독하다.  
눈 나리는 날 무거운 짐을 지고 노인으로 골다리를 지나는  
노인의 심정은 초조(焦燥)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만도  
같다. 화면구성에 있어서도 대단히 새로운 감각이  
엿보이며 또한 공간처리는 주제물의 감정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다.



**사진12** 『사진문화』제6호에 게재된 사진의 원본으로, 눈 오는 날 홍예문 거리의 모습이다.

6) 『사진문화』는 1956년부터 한국사진문화사에서 발행한 잡지로, 1960년대 초 폐간되었다. 한국사진문화연구소, 『사진+문화』 11호, 2016. 12.

1957년 3월 24일 서울에서 『한국칼라포토클럽』이 창립되었다. 먼저 은영회의 김철세가 간부(기획)로, 송인호가 회원으로 입회했다. 이종화는 두 달 늦게 가입했다. 매월 1회씩 회원전(슬라이드)을 행하여 우수작을 선정했다가 동방문화회관에서 영사전을 하기로 했었다. 인천에서는 김철세, 송인호, 이종화의 3점이 각각 선정되었으나 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이 해부터 은영회는 전국 규모의 사진대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대회 명칭은 제1회 전국임해촬영대회(全國臨海撮影大會)로, 8월 4일 인천 물치도(작약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다.<sup>7)</sup>

은영회의 발전에 따라 촬영대회가 회에서 논의되던 중 인천은 해안지대이니 만치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하기대회를 개최하자는 결론을 얻었다. 대회의 명색(名色)이 전국대회니 만치 거기에 따르는 규모가 큰 문제꺼리였다. 어떻게 보면 백수(白手)로 덤벼드는 무모하게 짝이 없는 것이기도 했었다. 막대한 경비도 문제였거니와 전국적인 PR 또한 큰 문제였었다. 그러나 허합 회장은 대담하게 앞장을 섰다.

우선 그 당시 부수가 많이 나가던 『서울신문』에 착안, 그 인천지사장이던 주호석의 알선으로 본사를 방문코, 당시의 편집국장 고제경(高濟經)과 사진부장 이병은을 만나 상의했던바 특히 고제경 국장의 깊은 이해로 양자공동주최의 대회를 하자는 결의가 되었다. 국내(國內) 아무데서도 이러한 대담한 행사를 감행하지 못했던처라 전회원은 전전긍긍했고 허합 회장 역시 비장한 결심(決心)으로 시작했었다.

역사적인 8월 4일.

날씨가 흐렸다. 서울을 위시한 각처에서 많은 참가원들이 모여 들었다. 특선으로 작약도에 상륙한 다음 오전 11시경부터 촬영을 개시했다. 지도에는 『사진문화사』 사장 조명원과 한국사진작가단의 정도선이 도맡고 모델에는 당시의 인기 여우(女優) 안나영, 나애심(羅愛心) 등이었다.<sup>8)</sup>

- 『인천사진문화사』, 34~35페이지 -

이종화는 1957년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인천문화원에서 개최한 제7회 은영회 사진동인전에 〈유정(有情)〉을 출품했다.

7) 전국임해사진촬영대회(全國臨海寫眞撮影大會)는 1957년 제1회부터 2023년 현재 제67회에 이르기까지 전국 규모로 개최하는 사진대회이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가 한국사진작가협회로부터 인준을 받아 매년 8월 혹은 9월경에 진행한다.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서 깊은 대회로 한국 사진 문화 저변 확대에도 기여했다.(출처 : 디지털미추홀구문화대전)

8) 안나영(安那英, 1935 ~ 1960), 나애심(羅愛心, 1930. 10. 26. ~ 2017. 12. 20.)으로, 생몰년은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를 참조했다.

1958년, 이종화의 <말초신경>이 『사진문화』제9호(1월호)에 특선 게재되었다(사진13).



말초신경(末梢神經) 특선 이 종 화(Lee Chong Hwa)

(評)환자가 고통을 참으려는 진통의 표정 의사와 간호원의 손이며 이쪽저쪽 모아 긴장되어 강한 인상의 실제감(實際感)을 적합(適台)한 채광(採光)과 아슬아슬하게 짝뚫은 구성(構成)으로서 그 대담(大膽)수법은 공백으로서 실패(失敗)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된 수작이며 그 훌륭한 솜씨는 과연 100여매의 응모작품을 물리치고도 남음이 있는 작품이다. 전면적인 애매한 초점(焦點) 만큼은 결점이다.

선평(選評) 정도선(鄭道善)

사진13 <말초신경>(출처 : 『사진문화』제9호(1월호), 1958. 1.)

은영회 주최로 이종화는 1958년 처음으로 제1회 칼라 슬라이드 영사회를 개최했다. 9월 23일 오후 7시 반, 장소는 내동 락희다방(樂喜茶房)이었다.

시내 내동(內洞) 락희다방(樂喜茶房)에서 은영회 주최로 제1회 이종화 천연색 슬라이드전을 개최했다. 작품 180점을 일일이 환등기(幻燈機)로 영사해가면서 해설은 촬영자 스스로가 구두로 했다. 내 객 90명 정도 이것이 인천 최초의 천연색 슬라이드전이었고, 또 사진 개인전으로서는 김철세(金哲世) 다음 두 번째가 된다.

- 『인천사진문화사』, 42페이지 -

이종화의 두 번째 슬라이드 영사회는 1959년에 열렸다. 1회와 마찬가지로 은영회 주최로 1959년 1월 16일 제2회 칼라(천연색)슬라이드전을 개최했다. 1월 16일 밤, 장소는 인천 향도다방(港都茶房)이었다.

몹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정렬 인천시장을 비롯해 재인문화단체 인사 150여명이 내집(內集)해서 장내는 초만원을 이루었었다. 이 슬라이드전은 제1회 때와는 양상이 많이 달랐었다. 우선 녹음기(錄音器)로 음악을 수록해서 화면에 알맞은 효과를 거두었고 편집도 제1부와 제2부로 나누어 제1부에는 각 회원들이 찬조출품해준 약 40점이었고 제2부에는 당자의 작품 140점이었다.

그리고 제1부는 다시 《가을의 향연》과 《소녀의 기도》의 두 제목으로 나누어 해설 없이 음악 효과로만 사진을 감상할 수 있게한 두가지의 시리즈였다.

영사회가 끝난 후 다과회(茶菓會)가 있었는데 그 석상에서 시장을 비롯한 내빈(內賓)들의 감상담이 있었고 서울서 온 한국사단의 중진(重鎭) 정도선의 관평(觀評)도 있어 모임을 빛내게 했다.

또 이날 전시회(展示會)를 계기로 문화계(文化界) 인사들과 김 시장 간에 문화회관을 인천에 건립할 것 까지의 합의(合意)가 되었던 것이니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큰 수확이었다.

- 『인천사진문화사』, 42페이지 -

특기할만한 사실은 1958년 11월 23일 새로운 사진 단체 ‘인천사우회(仁川寫友會)’가 발족했다는 점이다. 이 단체는 김광일이 주축이 되어 회장으로 양준식(梁俊植), 회원으로 조두순, 김명철, 변길선, 임경선 등이 참여했다. 여러 임원 변동은 거쳐 변길선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인천에 은영회, 인천사우회 2개의 사진 단체가 생겼다.

인천사우회는 1959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제1회 동인전을 인천 은성다방(銀星茶房)에서 개최했다. 한편 은영회 역시 같은 해에 인천공보관에서 제9회 동인전을 개최했는데, 공교롭게도 사우회와 은영회는 모두 춘계(春季) 동인전을 개최했다. 또한 두 단체는 추계(秋季) 동인전도 개최했는데, 개최 시기는 달랐지만(인천사우회 : 10월, 은성다방 / 은영회 : 11월 19일, 인천공보관) 동인전의 성격은 비슷했다.

당시 제10회 은영회 동인전을 감상했던 고일(高逸, 본명 고희선, 1903 ~ 1975)은 다음과 같은 감상을 1959년 11월 20일 『인천신문(仁川新聞)』에 발표했다.



## 은영회전시 인상기

毛節伊

지난 20일 나는 제10회 인천 은영회 동인 사진전시회에 참관했다.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인천시 공보관에서 공개하고 25일부터 일주일간은 부평(富平) 에스캄사 경부(司令部)에서 한미친선(韓美親善) 사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출품자 씨명과 출제(出題)는 (중략) 이종화씨의 풍상 준암 사양(斜陽) 유언(遺言) 도(道)....(중략)

작년 겨울인가? 항도다방(港都茶房)에서 천연색 영사를 본 이래 나는 두 번째 은영회 동인작품을 감상하는 기회를 얻었다.

맨 먼저 내눈의 초점을 이끈 작품은 이종화의 ‘유언(遺言)’이다. 화(花)판이 떠러진 시든 꽃 가운데 한 가닥 화(花)판을 남긴 한송이꽃이 그나마 미구에 그것마저 떨어질 운명에 놓여진 단말마의 일순(一瞬)을 표현한 걸작품이다. 출제와 착상에 우선 경탄했다. 이제 최후(最後)를 순간(瞬間)에 두고 마지막 유언 삼라만상(森羅萬象)에게 고하는 모습이었다. 나도 아직 한 조각의 무엇을 남길 수 있는 유언을 할 수 있을까? ‘인지장사(人之將死)에 기언야선(其言也善)’<sup>9)</sup>이라면 한 송이의 유언도 그 모습이 이렇게 애처롭게 아름다울까?

다음은 ‘도(道)’였다. 사파와 피안(彼岸)에서 불타는 묵념(默念)한다. 모든 허위가장추악(虛僞假將醜惡) 무념무상(無念無想)은 해설의 법열을 표상(表象)한다. 불상(佛像)의 전면에는 온갖 추악상(醜惡相)이 난무(亂舞)한다. 우리는 도(道)에서 선(善)과 악(惡), 미(美)와 추(醜), 진(眞)과 가(假), 신(神)과 마(魔)를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종화)씨의 작품 ‘사양(斜陽)’, ‘준암’의 기발한 착상 독특한 표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었다. ‘풍상’은 해설적이고 입체미가 없었으나 씨의 의술안과 표현력은 전진하고 있는것만은 틀림없다. 사진이란 기술적인 작품에서 우리는 씨의 심혈로부터 발산되는 영혼의 시와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나의 낯은 희열속에 춤추고 있었다.(중략)

나는 32종의 우수한 역작을 다시 보기 위해 두 번 참관했다. 정웅복씨의 안내로 참관하는 인천시장 김정렬씨도 매우 흥미있게 감상하였다. 나는 두 차레를 보아도 편견 같지만 이종화씨와 서정남씨 작품에는 볼수록 염증을 몰랐다. 이씨 작품은 씨 독특한 예술안으로 미화착상된 명시(名詩)라면 서씨의 것은 심오웅대한 철학(哲學)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 두분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사진예술에서 찾아낸 기쁨을 아울러 갖는 자량을 잊을 수 없었다. 동인(同人)들의 건투를 빌면서 우둔한 인상을 적는 것이다. <끝>.

- 『인천신문(仁川新聞)』, 1959. 11. 20. -

9) 증자(曾子)의 말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말은 선하다’는 뜻이다.

이종화는 1959년 한국기상학회 《전국구름사진공모전》에서 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다른 작품들과 함께 10월 5일부터 일주일 간 화신회랑에서 전시되었다.

1960년 이종화는 제3회 칼라 슬라이드 영사회를 개최했다. 2월 6일 밤 7시, 장소는 인천 은성다방이었다.

좌석관계로 초대석(招待制) 전시회를 했다. 내빈은 김정렬 인천시장, 이종설 시의원 등 각계명사와 인천 문화계요인 약 150여명으로 만석을 이루었다.

슬라이드 총수 180매로 제1부와 2부로 구분해 제1부는 회원들의 찬조출품인 20점이었고 2부는 나머지 150점의 이종화 작품이었다.

2부는 또다시 ‘금수강산’과 ‘사진만화’라는 두 제목 하에 음악으로 시리즈를 엮었었다. 역시 제1부는 음악과 해설을 부쳤고 3부는 해설없이 음악만 들어가며 화면을 감상하게 하였다. ‘금수강산’은 사계(四季)의 자연미를 예찬한 것이고 ‘사진만화(寫眞漫畫)’는 한 장 한 장 감각적인 작품을 가지고 많은 음반족에서 관능적(官能的)인 부분만을 따서 거기에 ‘아피일’시켜본 것이 있다. 유모러스한 가운데에서 하나의 휴머니티를 찾아보려는 저의(底意)의 시도였다.

- 『인천사진문화사』, 49페이지 -

1960년 은영회는 인천의 사진문화 발전과 후배양성을 목적으로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사진강좌를 개최했다. 시작은 7월 19일부터 5일간, 매일 7시부터 90분간 진행했는데 연(連) 210명이 응모하는 등 연일 성황을 이루면서 당초 계획했던 5일에서 하루 더 연장해 6일로 변경했다고 한다. 이종화는 ‘칼라사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진행했다. 또한 1960년 개최 제4회 전국임해촬영대회(1960년 8월 21일, 팔미도)에서 이종화는 입상작품을 심사했다.

한편 앞서 언급한 인천사우회는 1958년 창립 이후 계속해서 은영회와 비슷한 시기에 동인전을 개최하고 있었다. 이종화는 자칫 두 단체가 반목(反目)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여 『인천신문』 지면에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연인지 고의였는지는 몰라도 또 공공롭게 양 단체는 같은기간내에 두군데서 동인전을 폈었다. 선의의 실력대결은 좋으나 역시 어딘가 석연치 않은 검은 그림자가 양자간을 돌고 있었다. 같은 고장에 서 자칫하면 반목(反目) 아닌 반목(反目) 같은 것도 있기 쉬운 살얼음판이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은영, 사우회는 그 발족시부터 통합의 필연성을 지니고 있었다. 가속한 통합이 없는 가뜩이나 빈곤한 인천사단(仁川寫壇)의 강화 내지는 불미(不美)한 사태를 야기(惹起)시키는 길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도 은영회의 이종화와 사우회의 중심인물인 김광일 개인과는 마주 바라다보는 직장을 가지고 조석상봉(朝夕相逢)하는 이웃사촌인지라 개인적으로는 서로 반목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것이

<p>이종화가 이 통합운동에 선봉을 서지 않을 수 없었던 동기였다. 이에 이종화는 『인천신문』 지상을 통해서 두 단체의 통합을 강력히 주장했다.</p> <p>은영회원들도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反對)를 했었으나 차차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 61년 1월 5일 은영회 월례회 석상에서 다시 이 통합문제가 논의되다가 결국은 통합추진론에까지 이르게 되어 이종화, 김종훈, 김인수 등이 그 교섭위원으로 지명을 받았다.</p>
<p>– 『인천사진문화사』, 52~53 페이지 –</p>

1961년부터 은영회와 인천사우회는 통합 절차에 들어갔다. 그 와중에도 이종화는 꾸준히 활동을 지속했다. 그동안 한국칼라포토클럽(KPC) 회원으로 매월 서울에서 슬라이드 동인전을 해왔던 이종화는 회원들과 함께 칼라 사진을 한국미협전사진부에 출품하여 <철화(鐵火)>, <건어(乾魚)> 두 점이 입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사진들은 5월 8일부터 13일까지 경복궁미술관에서 전시되었다.

또한 제5회 임해사진촬영대회(1961년 8월 27일, 팔미도)에 인천 측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9월 14일 저녁 7시, 은영회와 인천사우회의 통합 논의는 그 결실을 맺어 인천문화원에서 두 단체의 통합을 선언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때 탄생한 통합단체는 ‘인천사진작가협회(仁川寫眞作家協會)’로<sup>10)</sup> 은영회의 김종훈이 새 단체의 회장이 되었고 이종화는 통합단체의 회원으로 참여했다. 이와 동시에 1949년 창립 이후 활발히 활동했던 은영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p><b>역사적(歷史的)인 은영 · 사우회의 악수(握手)</b></p>
<p>은영회 측의 교섭위원인 김종훈, 이종화, 김인수 그리고 사우회측의 변길선(邊吉善)<sup>11)</sup>, 김광일, 김시중 등이 여러 차례 통합문제로 회담을 한 노력이 헛되지 않아 양측 회원 간에 양해가 생기고 이어서 통합의 결실을 보게되었던 것이다.</p>
<p>61년 9월 14일 오후 7시</p> <p>인천문화원에서 두 단체의 통합을 선언하고 창립 총회를 개최하였다.</p>

10) 1961년 탄생한 통합단체는 1962년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부로 재창립하였다. 현재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의 전신(前身)이다.

11) 변길선(邊吉善, 1921 ~ 2007)은 평안북도 운산 출신의 사진작가로 1940년대 초 일제 징용을 피해 중국을 거쳐 1946년 인천에 정착했다. 1958년 조직된 인천사우회의 창립회원으로 1 ~ 3대 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시 지회를 중심으로 1962년에 한국사진작가협회 창립 회원으로 활동했고, 2·3·4대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 1962 ~ 1964년 한국 사진작가협회 인천시 지회장을 역임했다. 또한 경기도 미술 대전·제물포 사진 대전·인천시 사진 대전의 심의 위원, 대한민국 사진 전람회 운영 위원, 인천시문화상 심의 위원, 한국사진작가협회 운영 자문 위원 및 인천시 사진 대전 초대 작가로 활동했다. 2007년 2월 22일 86세로 사망했다.(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p>▸ 참석인원</p> <p>은영회측 : 김종훈, 이종화, 허합, 김인수, 이종우(李種愚), 홍화표</p> <p>사우회측 : 변길선, 임경선, 김명철, 김광일, 이창식, 김용해, 홍재린</p>
<p>개회초부터 회의 명칭 때문에 좀 옥신각신 했으나 결국은 &lt;인천사진작가협회&gt;로 낙착(落着)되었다.</p>
<p>– 『인천사진문화사』, 54 페이지 –</p>

1962년 이종화는 인천사진작가협회의 신입회장이 되었다. 새 단체의 회장 김종훈이 10월경 전출(轉出)을 하게 되면서 임시총회를 통해 변길선을 선출했으나, 12월에 회장 변길선이 또 강원도로 떠나게 되자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 이종화를 회장으로 개선(改選)한 결과였다.<sup>12)</sup>

또한 이 시기에 인천사진작가협회도 변화를 겪었다. 5.16 군사정변으로 설립된 정부는 당시 각 지역 문화 단체의 통합을 주문했고, 이에 따라(1961년 12월 7일 서울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가 결성되었다.) 1962년 1월 20일 오후 7시, 인천문화원에서 인천사진작가협회를 해산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부’로 재창립했다.<sup>13)</sup> 이후 개최한 총회에서 이종화는 인천지부장이 되었고 회원으로 변길선, 김인수, 이봉운, 김명철 등이 참여했다.

그 밖의 인천의 각종 문화단체들도 통합절차에 들어갔다. 3월 10일 오후 3시 반 인천문화원에서 사협(寫協)의 김인수 임시의장 주재하에 한국예총 경기도지부 창립총회(현 인천예총 전신)를 개최했고, 한국예총 경기도지부장으로 사협(寫協)의 이종화가 선출되었다.<sup>14)</sup>

이후 예총 경기도지부는 제10대 인천시장 류승원(柳承源, 재임기간 : 1961. 5. ~ 1963. 2.)의 배려로 인천시민관 운영권을 받았고, 문화센터가 건립<sup>15)</sup>되면서 업무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고 목표인 문

12)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홈페이지 역대 회장 명단에서 이종화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종화는 1962년 초대 회장(지회장)을 지낸 후 1969년 제8대, 1973년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출처 :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광역시지회 홈페이지 https://icnpask.com)

13) 『인천사진문화사』 59페이지에 1963년 1월 20일로 기록하고 있으나, 당시 정황 및 문맥상 1962년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새로운 정부는 새로운 방향의 문화단체 조직 원칙을 제시하고 문화인들의 자율적 통합을 장려했다. 정부 당국에서는 문화단체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가칭)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라는 이름 아래 통합하려 하였는데 이는 문학, 예술, 무용 뿐만 아니라 사진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사진협회 역시 정부 정책에 따라 이미 통합을 마치고 규약 마련을 위한 총회를 1961년 12월 17일 오후 1시에 중앙공보관에서 개최하였기 때문에 한국사진작가협회(통합단체)의 인천지부는 해를 넘긴 1962년 1월 초에 결성되었음이 합리적이다.(<문화단체 연내엔 통합>, 『조선일보』 1961. 12. 18.) 또한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인천광역시지회 홈페이지 내 <지회연혁>란에 1962년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부가 창립되었다고 명기하고 있다.

14) 이종화는 한국예총 경기도지부의 초대 · 3대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출처 : 인천예총 홈페이지 http://www.artin.or.kr/)

15) 문화센터는 1962년 9월 15일 건립된 2층짜리 양관 건물로 인천시립도서관 본관(구관) 옆에 세워져 인천시립도서관 신관으로 불렸다. 1층을 경기예총의 사무실로, 2층을 도서관으로 사용했다. 『인천시립도서관요람(1963)』에 수록된 신관 평면도(1층)에서 예총 사무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이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2011년 7월 8일부터 율목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출처 : 『인천사진문화사』 및 인천광역시, 『인천역사문화총서 제93호 미추홀도서관의 어제와 오늘』, 2021.)



화제를 추진했는데, 여러 차례의 예총이사회를 거쳐 제9대 경기도지사 박창원(朴昌源, 재임기간 : 1961. 5. 24. ~ 1963. 12. 16.)과 타협한 결과 《세종문화큰잔치》를 마련했다.<sup>16)</sup>

『세종문화큰잔치』는 62년 경기도예총이 주동(主動)하여 박창원 지사에게 건의하자 지사는 도내에 세종대왕의 영릉(英陵)이 있으니 그 능전에서 서막을 올리고 각 산하단체행사는 인천에서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었다. 이에 합의가 되자 경기도로서는 최초요 최대인 대문화행사가 도와 예총(경기도)지부의 공동주최로 거행되었다.

식장에는 최고회의장(후의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요인, 각 기관장, 교육기관, 사회단체에서 많이 참석했었다. 예식이 끝난 다음 능전 여흥의 하나로써 도내 남녀중고등학생촬영대회를 바로 능전과 그 주위에서 시행케되었다. 모델은 여주 중고여학생들이었다.

남녀학생 60여명이 사협(寫協) 회원들의 지도를 받아가며 종일 촬영을 하였다. 귀로에는 차편이 모자라 어린 학생들을 몹시 고생시켰었다.

- 『인천사진문화사』, 64페이지 -

1962년 5월 신인예술상전(현 국전(國展)의 전신)에 이종화의 작품 〈이상(異常)분만〉, 〈기도〉(칼라)가 입선되었다. 그리고 이종화는 제6회 전국임해사진촬영대회(8월 19일, 팔미도)의 심사위원을 맡았다. 심사는 9월 12일 이종화의 공립병원에서 진행했으며 본인을 포함해 변길선, 김용해, 홍화표, 김광일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9월 16일 인천문화센터 개관식에서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류승원 시장 등이 방문하여 전시작품을 참관했다고 한다.

1962년 9월 중순, 이종화는 제4회 천연색슬라이드전을 시립박물관에서 개최했다.

9월 중순 인천박물관에서 문화계인사들을 초청하고 10년간 촬영한 『문학산(文鶴山)』의 슬라이드 영사회를 가졌었고, 또 이어서 10월 14일 저녁 7시 문화센터에서 『세종문화큰잔치』의 일부 행사인 『시와 음악과 슬라이드의밤』에 다시 전시회를 가졌었다. 3회때와 같이 해설과 음악과 인천 시인들의 작품을 녹음하여 그 효과를 거두었다.(총점수 200점)

- 『인천사진문화사』, 65페이지 -

16) 세종문화큰잔치는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을 기리고 새로운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키자는 뜻에서 마련되었다. 제1회 세종문화큰잔치는 1962년 10월 9일 한글반포 516주년을 맞아 경기도, 예총 경기도지부, 재건국민운동 경기도지부의 공동 주최로 세종대왕의 능침이 있는 여주에서 개최되었다. 세종문화큰잔치는 진주의 '개천예술제', 경주의 '신라문화제',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제' 등과 비슷한 규모의 행사로 계획되었으나 세종대왕을 기리고 받드는 일이 경기도만의 일은 아니라는 이유에서 날로 규모가 축소되었다. 세종문화큰잔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해 오다 1976년 제15회 행사를 끝으로 중단되었다가 여주문화원과 여주군의 노력으로 1981년 제16회 행사를 개최하게 됨으로써 다시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다. 현재 매년 10월 여주문화원의 주최로 경기도 여주시에서 열리고 있다. (출처 : 『주제로 보는 여주시사』)

1963년 이종화는 4월 7일부터 5월 8일까지 『인천신문』 지면을 통해서 문협(文協)과 공동주최로 시사전(詩寫展)을 전개했다. 여러 사진작가들이 참여했고 이종화는 〈향수〉를 출품했다. 또한 제2회 신인예술상 사진전에 이종화의 작품 여러 점이 입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입선작품은 흑백사진부에 〈추정(秋情)〉, 칼라사진부에 〈상징〉·〈고혼(孤魂)〉·〈영세〉였다.

10월 31일 박창원 도지사 주재하에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제2회 경기도문화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이종화는 '미술상'을 수상했다(사진14). 당시에는 사진상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진상으로는 최초의 수상이었다.<sup>17)</sup> 사진부문은 2년 뒤인 1965년에 생겼다.

京畿道文化賞 受賞者名單					
授賞年度	部 門	部 門 別	部 門 別	姓 名	備 考
1963	1	文 化	文 學	金 昌森	評議院(仁川)
		文 學	文 學	朴 相賢	漢陽大, 朝鮮客在學務院(仁川)
		文 學	文 學	崔 永健	作曲家(仁川)
		體 育	體 育	崔 永吉	「마쓰모」京州式會 司(仁川)
		文 學	文 學	李 仁生	水上調査會長(仁川)
		文 學	文 學	朴 生明	京畿體育會員
1964	2	文 化	文 化	韓 相植	詩人(仁川)
		文 化	文 化	朴 賢雲	畫家(仁川)
		文 化	文 化	李 宗和	京畿作家(仁川)
		文 化	文 化	金 熙燾	劇作家(仁川)
		文 化	文 化	朴 相植	京畿道文化部長(仁川)
		文 化	文 化	朴 賢雲	京畿道長(仁川)

**사진14** 경기도문화상 수상자명단이다. 1963년 문화 부문(미술) 수상자 명단에서 이종화(사진작가) 외 당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천의 문화예술인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1964년 2월 24일 문화센터에서 거행한 경기도예총 제3차 정기총회에서 임원 선거를 통해 이종화는 제3대 지부장에 당선되었다. 또한 이종화는 미8군의 사진콘테스트의 심사위원으로 초대를 받아 4월 13일 전 주한 미군들의 응모작품을 심사했다. 심사를 전후해 미군 책임자가 친히 승용차로 두 번씩이나 인천까지 송영하는 등 마치 국민인 양 정중한 대우를 받았다고 기록했다.

제3회 《세종문화큰잔치》의 인천 측 행사로, 10월 18일 11시 인천사협 주최 도내 남녀중고등학생 촬영대회를 송도에서 개최했다. 행사 종료 후 가작, 입선작을 선정해서 인천 문화센터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이종화는 학생사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10월 19일자 『경기매일신문(京畿毎日新聞)』에 실었다.

17) 『인천시사』(下), 1973, p. 674.

사진을 정시(正視)하자  
- 인일여고 교내사진전을 보고 -

지금 인천문화센터에서 전시중인 인여중 인일여고(仁一女高)의 교내 사진전시회는 10월의 문화절 및 교육절에 알맞은 학교행사라고 본다.

특히 사진분야가 비로소 국전(國展)에 참여하게된 시점을 포착하여 타고에 앞장을 서서 교내행사로 사진을 지목한 교장선생의 과거는 심히 슬기로웠다고 보아진다.

30여점의 작품들은 8\*10사이즈로 일매작계 통일시켜 가즈런히 나열하였는데 그품이 마치 제복(制服)을 입은 여학생들을 대하는 것 같았다. 작품을 주마간산(走馬看山)격으로 보아진 나의 죄과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 작품들을 지상강평(紙上講評)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본다. 작화면에 있어서나 처리면에 있어서 첫 출발인만치 상당시간을 두고 굳은 기반을 쌓아올려야 한다는 것을 솔직히 말해둔다. 세부적 강평(講評)과 지도방향(指導方向)은 담당 선생님들에게 일임(一任)하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 특기할 것은 황무지로부터 이마만한 지점까지 이끌어올린 담당(擔當) 선생의 노고(勞苦)와 촬영 지도로부터 조사에 이르기까지 친절히 시중해준 사협 김광일(金光一)씨를 위시한 몇몇 동지들에게 치하(致賀)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무릇 사진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제국에 비해 뒤떨어져 바로 직전까지도 예술이니 아니니하고 논란이 되어 왔었다. 그러나 노도(怒濤)와 같은 세계조류와 국내작가들의 꾸준한 노력이 매듭되어 마침내 그 완고했던 문고리는 벗겨져 나가고 말았다. 따라서 학교 정서교육으로서 사진등장은 몇몇한 인정을 받게되었고 또 누가 그 각 대도시학교를 가느냐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미 이런점에 착안하여 각 대도시학교에서는 벌써부터 교내에 사진부를 두어 그 활동이 자못 활발하다.

또 각 대학교 미술대학에서도 사진과를 두어 아카데미하게 이것을 다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 인천지구 각 중고등학교에서도 사진반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그 움직임이 몹시 미미하다. 이때에 인여중 인일여고가 발랄하게 선보(先步)를 내딛인 것은 과연 쾌거라고 복언하고 싶다. 때를 같이하여 사협 인천지부에서도 연내 대문화행사인 『세종문화큰잔치』에 도내남녀중고등학교 촬영대회를 여주 세종대왕능 앞에서 갖 인바 있었는데 원거리로인한 교통의 불편으로 학생들의 참가가 극히 불리했던점을 통감한 나머지 그 행사를 여주로부터 인천 행사에 이관시켜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끝으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한마디 당부하고 싶은 말은 사진을 가르치는데는 물론 『카메라』라는 기계를 구사하는 만치 그 성능을 일십분납득시켜 사람과 기계가 혼연일치가 되도록 그 기초를 마스터시켜야겠지만 사진이 엄연한 예술이고 불진데 타분야 자매예술로 고려(考慮)에 넣어달라는 것이다.

특히 미술강연, 문학강연등도 전문분야 선생의 협조를 얻도록 해야된다는 점이다. 자기 비만(肥滿)의 길이다.

또하나 학교당국에 부탁하고 싶은말은 기왕지사(己往之事) 사진부를 둔 이상 확고한 예산(豫算)을 세워 담당 선생들의 유기적인 활동을 평안케 해주어야 할것과 지도책임을 선택하되 학부형중에서라는 약점만을 노력 인간적인 대우를 소홀히 한다면 그 발전은 크게 저해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박력(迫力)있게 전진하는 사진반은 둘말정 유아 무야한 사진반은 두지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인천사진문화사』, 72~73페이지 -

제13회 국전에서 사진부문이 별도로 신설되었고 이종화의 <조간(朝刊)>이 입선했다. 이 사진은 이종화 선생이 아들을 모델로 연출했다.



사진15 당시 입선한 사진 <조간>, 「묘기(妙技)」라는 제목의 에세이와 함께 실렸다. (『카메라藝術』, 1969. 1·2.)



사진16 아들을 모델로 신문배달하는 소년의 묘기를 연출하는 모습